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위계적 선형모형의 활용*

What Factors Affect Parents' Perceptions of Childcare Friendliness
in the Local Community?

: A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pproach

구한민**·김서영***·허연****·김나영*****

Hanmin Gu·Seoyoung Kim·Yeon Hur·Nayoung Kim

■ 목 차 ■

- I. 서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실증분석결과
- V. 결론 및 논의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데 반하여 학술적인 접근은 드물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육아하기에 친화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

* 이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III):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연구보고 2021-24)의 내용 일부에 바탕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 제1저자 구한민은 연구보조원, 교신저자 김나영은 연구책임자로 각각 참여하였다. 이 논문의 초고는 2022년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춘계학술대회와 2023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 제1저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평가팀 부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3. 6. 19. 심사기간: 2023. 6. 19. ~ 2023. 8. 16. 게재확정일: 2023. 8. 16.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 결정요인을 식별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육아환경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역시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가구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역시설 만족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의 확산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육아친화성,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육아친화마을, 한국아동패널, 위계적 선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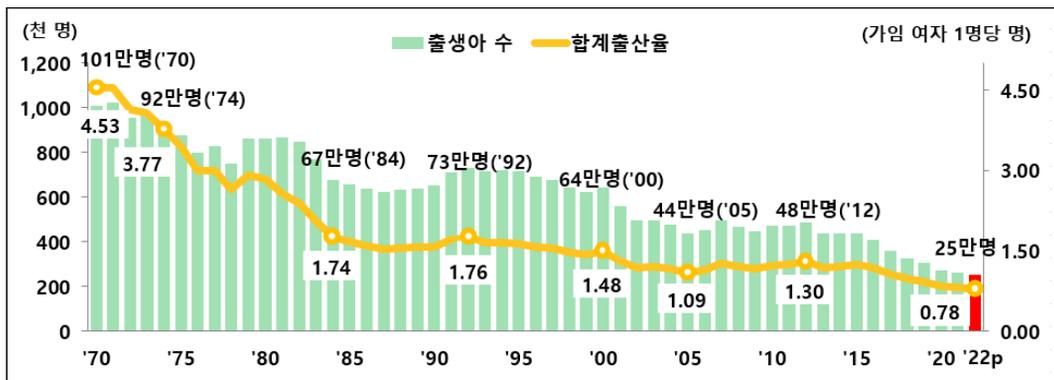
While the policy interest in childcare-friendly local communities is high, this subject lacks academic research in Korea. Therefore, there is limited empirical evidence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parents' perceptions of a local community's friendliness toward raising children. This study uses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and explore the determinants of parents' perceptions of childcare friendliness in the local community. The results are: First, higher monthly incom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 more favorable perception of childcare friendliness. Second, employed mothers express higher satisfaction with local facilities than unemployed mothers. Thir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in a household is correlated with lower satisfaction with local facil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childcare-friendly local communities.

□ Keywords: Childcare Friendliness, Childcare-Friendly Local Community, Childcare-Friendly Villag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Hierarchical Linear Model

I. 서론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¹⁾은 0.78명으로(통계청, 2023) 197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그림 1〉).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38위에 해당한다(OECD, 2023). 더욱 심각한 것은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7개국 중 최하위라는 것이다(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2023).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쇼크’에 외신까지 주목하고 있다(Hancocks, 2022).

〈그림 1〉 1970~2022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통계청, 2023

일반적으로 한 선진국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수준 출산율(replacement level fertility)이 2.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Bongaarts, 2002; Espenshade *et al.*, 2003), 저출생²⁾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

1) 현재의 출산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자가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5세 간격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통계청, 2023).

2) 최근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이 아닌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출산(低出産) 대신 저출생(低出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주장이 있다(배은경, 2021). 우리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엄밀하게 출산과 출생, 출산율과 출생률 등의 용어는 학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의견이 있다(김희삼, 2023; 최슬기, 2018). 출산은 아이를 낳음을 뜻하고,

른 총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중국적으로 소비 감소, 빈집 증가, 지방소멸, 국민연금 고갈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최상준·이명석, 2013).

당국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06)을 수립하였다. 이후 17년간 저출생 대책에 30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였다(김우림, 2021). 그럼에도 저출생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하 코로나19)은 출산율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첫째아 출산과 20대의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2~3년간 출산율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신윤정 외, 2022).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개인주의화, 핵가족화, 성 역할 변화 등과 같은 문화적 요인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고용 불안, 취업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김경수 외, 2018; 박진백, 2021; 이복순 외, 2010; 이복실, 2011; 이성용, 2006; 이인숙, 2005; 정성호, 2010; 최상준·이명석, 2013). 따라서 현금성 지원 일변도의 일차원적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을 재고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신윤정·이지혜,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는 가구 수준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책임 의식에 따라(강은진 외, 2020b), 육아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강은진 외, 2020a; 권미경 외, 2019b; 박휴용·여영기, 2014; 서문희 외, 2011; 유해미 외, 2019; 홍정화, 2012).

육아친화적 지역사회(childcare-friendly local community)의 개념은 육아친화성(childcare friendliness)이 높은 지역에서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 관점에서는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가 아닌 ‘부모가 행복하게 키우도록 모두 함께 돕겠습니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권미경, 2017).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격언을 지역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다(강은진 외, 2020a; 권미경 외, 2019a; 김나영 외, 2021). 정부는 2019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15)을 수정하며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였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20)을 수립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등을 명시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시 육아환경에서 지

출생은 아이가 태어남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개념어나 고유명사는 맥락에 알맞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역사회의 긍정적인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를 기대하며 지역에 특화된 육아친화마을(childcare-friendly village)을 조성하고 있다(권오석, 2022; 김용묵, 2023; 서유리, 2023; 이두걸, 2022; 전인수, 2022).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은 데 비하여 국내의 학술적 연구는 드물다(예를 들면, 김혜정, 2017; 양진희, 2021). 따라서 지역사회에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기에 친화적이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이는 아동친화성(child friendliness), 가족친화성(family friendliness)과 달리 육아친화성의 개념이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하여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 결정요인을 다층적으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 결정요인과 관련한 연구의 간극을 메우는 초기적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육아친화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III장은 데이터와 변수, 실증분석모형 등 연구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 결정요인을 식별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도출하고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의 확산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II. 문헌고찰

1. 육아친화성의 개념적 정의

육아친화성³⁾이란 가족친화성, 여성친화성, 아동친화성 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강은진 외, 2020a) 어떠한 환경이 육아라는 행위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권미경, 2017). 따라서 육아친화성은 특정한 공동체, 사회, 마을, 도시 등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앞서 김혜정(2017)은 육아친화적 환경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

3) 혹자는 양육친화성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전적으로 ‘양육(養育)’은 ‘아이를 보살피서 자라게 함’을 뜻하고 ‘육아(育兒)’는 ‘어린아이를 기름’을 뜻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육아친화성이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더욱 적절하다.

모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일상 생활권 내에 있으며 육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무형의 요소를 갖춘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권미경 외(2019a)는 육아친화마을을 “다양한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육아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로 정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육아친화적 지역사회란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협력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이 존재하는 곳이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육아친화적 지역사회란 육아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 아래(강은진 외, 2020b)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해 나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육아친화성의 개념을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등 물리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인적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얼마나 육아하기에 적절한가의 정도로 정의한다.

다음은 실증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앞서 다수의 문헌(예를 들면, 권미경 외, 2019a; 2019b; 권미경, 2020; 2022; 권미량·김성원, 2012; 김숙자, 2018; 유해미 외, 2012; 홍승아 외, 2009)은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 간 유대, 육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등 육아와 관련한 사회적 자본의 강화와 함께 보육정보센터, 어린이회관 등 육아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김동훈 외(2021)는 이러한 측면을 사회경제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었고, 이들을 나누어 이해하되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혜정(2017), 권미경 외(2019a), 최아라·김혜순(2021)의 기존 정의에 바탕을 두되 육아친화성을 사회적, 물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여기서 사회적 측면은 육아환경 적절성, 물리적 측면은 지역시설 만족도로 구체화하여 명명하고 측정하였다.

2. 선행연구의 맥락 검토

일찍이 부모의 근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연쇄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모의 태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권유경·정소희, 2010; 윤우석, 2010; Roosa *et al.*, 2003). 권미량·김성원(2012), 이주림·구자훈(2013), 이효창(2022) 등은 이를 바탕으로 육아환경과 관련한 근린을 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학술적 연구로는 이 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간 육아친화성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

구원에서 수행한 육아친화적 주거정책 관련 연구(예를 들면, 김은설 외, 2018; 김지혜 외, 2019)가 있다. 이들 연구는 육아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를 탐색하였다. 이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3년에 걸쳐 「초저출산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강은진 외, 2020a; 권미경 외, 2019a; 김나영 외, 2021)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육아친화마을에 관한 기초 조사, 조성지표 개발 그리고 시범사업의 적용을 다루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강하라·박지영(2021)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여건에 대하여 분석하고, 부모가 속한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자원 및 인프라 제공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과 육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앞선 정책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육아친화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육아의 주체인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없었다는 한계점이 남는다.

3. 연구질문 도출

육아친화성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맥락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도출하였다.

RQ1.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환경 적절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지역 특성은 무엇인가?

RQ2. 부모의 지역사회 지역시설 만족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지역 특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을 결정하는 다층적인 요인을 식별한다. 이는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이 가구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육아친화성이 지역의 역량과 관계되어 있으며,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서는 부모의 육아정책 체감도가 높다는 지적(강은진 외, 2020b; 김은설 외, 2018)과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가구 수준에서는 부모의 연령 및 취업상태, 가구원 구성, 경제적 상황,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의 규모를 비롯한 지역내총생산,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등의 사회지표를 포함한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본 연구의 데이터는 가구 수준으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데이터에 시군구 단위의 통계청 데이터를 병합하여 구축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⁴⁾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 육아정책에 관한 종단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아동패널, 2023). 해당 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1차 연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하므로 가구 수준과 지역 수준의 데이터를 연결하여야 한다. 이에 11차 연도 조사 대상인 2,150가구 중 거주지역을 응답하지 않아 수준 간 데이터를 연결할 수 없는 케이스를 목록별로 제거(listwise deletion)하였다. 최종적인 데이터는 1,163가구의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지역 수준에서는 11차 연도 한국아동패널 조사 시점과 동일한 2019년의 시군구별 지역소득,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변수설정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을 활용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이라는 주관적인 지표이다. 육아친화성 인식은 앞선 문헌고찰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측면의 육아환경 적절성, 물리적 측면의 지역시설 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한다. 각 변수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문항 중 육아환경 적절성, 지역시설 만족도와 관계된 응답을 재구성한 지수로 측정하였다. 육아환경 적절성에서는 안전, 방법, 이웃관계, 방재시설 등 8개 항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각각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측정하였다. 이들 점수를 합하여 총 40점 만점의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전반적인 육아환경 적절성으로 정의하였다(Cronbach's $\alpha=0.74$). 이 중 ①번 항목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매우 그러함'이 부정적인 척도이므로 역코딩하였다.

4) 국가 수준의 패널 데이터로 아동 발달, 부모의 육아 지원 관련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손수민, 2012; 임혜성, 2016; 차인영 외, 2016; 최지은·김현경, 2019).

육아환경 적절성과 관련한 8개 문항 중에서 직접적으로 육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5개 문항, 즉 ②, ④, ⑤, ⑥, ⑧번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총 25점 만점의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직접적인 육아환경 적절성으로 정의하였다(Cronbach's $\alpha=0.77$). 전반적,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을 측정한 지수의 Cronbach's α 값은 0.7 이상의 값을 요구하는 사회과학의 통상적 기준(Bland and Altman, 1997; Schutt, 2018; Tavakol and Dennick, 2011)에 부합하므로 측정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시설 만족도는 육아환경의 물리적인 측면의 적절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문화, 여가, 복지, 건강 등 지역시설에 대한 부모의 이용 만족도 13개 항목을 각각 리커트 5점 척도(1='매우 만족하지 않음'; 5='매우 만족함')로 측정하였다. 이 점수를 합하여 총 65점 만점의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역시설 만족도로 정의하였다(Cronbach's $\alpha=0.92$). 지역시설 만족도 지수 역시 관례적인 수준(Bland and Altman, 1997; Schutt, 2018; Tavakol and Dennick, 2011)에서 측정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 육아친화성 정의별 측정 항목

구분	측정 항목
육아환경 적절성 (총 8개)	①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② 아동 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③ 유해시설(유형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 있다.
	④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⑤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⑥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⑦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⑧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지역시설 만족도 (총 13개)	① 놀이터의 이용에 만족한다.
	② 공원의 이용에 만족한다.
	③ 산책로의 이용에 만족한다.
	④ 영화관의 이용에 만족한다.
	⑤ 관람 및 체험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등)의 이용에 만족한다.
	⑥ 공연시설(문예회관, 음악회, 연극 등)의 이용에 만족한다.
	⑦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의 이용에 만족한다.
	⑧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의 이용에 만족한다.
	⑨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체육관, 수영장 등)의 이용에 만족한다.

구분	측정 항목
	⑩ 실외 체육시설(농구장, 축구장 등)의 이용에 만족한다.
	⑪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의 이용에 만족한다.
	⑫ 교육기관(학원, 대학교 등)의 이용에 만족한다.
	⑬ 공공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에 만족한다.

주 1: 육아환경 적절성은 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 지역시설 만족도는 1='매우 만족하지 않음'; 5='매우 만족함' 등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됨
 주 2: 지역시설 만족도 ⑬번 항목에서의 공공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의미하며,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수련시설도 포함함

육아친화성 인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앞선 문헌고찰의 결과를 종합하여 설정한 변수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여기서 금액으로 조사한 가구의 월소득, 월지출 그리고 지역내총생산은 측정 척도상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로그변환⁵⁾하였다.

<표 2> 변수의 개요

변수		단위	설명	
종속 변수	전반적 육아환경 적절성	점	5점 척도 8개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산출(40점 만점)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	점	5점 척도 5개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산출(25점 만점)	
	지역시설 만족도	점	5점 척도 13개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산출(65점 만점)	
독립 변수	가구 특성	모(母) 연령	세	가구원 중 엄마의 연령
		부(父) 연령	세	가구원 중 아빠의 연령
		모 취업 여부	-	1=취업 중, 0=그 외
		부 취업 여부	-	1=취업 중, 0=그 외
		월소득	ln(만 원)	가구 월평균 소득을 로그변환
		월지출	ln(만 원)	가구 월평균 총지출을 로그변환
		자녀 수	명	가구원 중 자녀의 수
	지역 특성	지역 규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범주형으로 측정
		지역내총생산	ln(만 원)	지역내총생산을 로그변환
		합계출산율	명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노령화지수	%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주: 종속변수의 측정 항목은 <표 1>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5) 로그변환을 하면 규모 단위의 우측 편포를 정규분포에 가깝게 수정할 수 있다(구한민 외, 2023).

3.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수준과 지역 수준의 요인을 포괄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실증분석에는 다수준(multilevel)으로 구성된 내재적(nested)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다수준으로 이루어진 자료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으로 분석하면 분석단위의 차이로 인한 독립성 가정 위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설을 타당하게 검정할 수 없다(유재언·진미정, 2013; 이윤경, 2009). 하지만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면 종속변수의 변동량에 대한 수준별 영향의 정도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고(김경성, 1991),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석단위 문제, 신뢰구간 추정, 공분산 요인 등 여러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강상진, 1995)에서 이를 활용하였다.

위계적 선형모형의 기초모형(baseline model)인 무조건적 평균 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은 식 (1)과 같다.

$$Y_{ij} = \beta_{0j} + \epsilon_{ij}, \quad \epsilon_{ij} \sim N(0, \sigma^2) \quad \dots \text{식 (1)}$$

이는 가구 수준의 회귀식으로 지역에 따른 고정효과(fixed effect)가 없다고 가정하고 절편과 오차항으로만 구성한 것이다.

식 (2)는 지역 수준의 회귀식으로 식 (1)의 모수추정치인 지역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 즉, 무선평면효과(random effect)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무선평면효과는 절편항의 모수의 추정에 반영되므로 무선평면효과(random intercept effect)라 할 수 있다.

$$\beta_{0j} = \gamma_{00} + u_{0j}, \quad u_{0j} \sim N(0, \tau) \quad \dots \text{식 (2)}$$

한편 엄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로 각 모수추정치에 대한 가설검정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모형은 위계적 선형모형의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소프트웨어 HLM 8: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으로 추정하였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에서 전반적 육아환경 적절성은 총 40점 만점 중 28.56점,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은 총 25점 만점 중 17.16점, 지역시설 만족도는 총 65점 만점 중 40.36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은 평균적으로 보통 보다는 적절하다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각각 $0.18(=5.24/28.56)$, $0.21(=3.70/17.16)$, $0.28(=11.63/40.36)$ 로 산출되어, 지역시설 만족도,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 전반적 육아환경 적절성 순으로 컸다. 통상적인 기준에 따르면 지역시설 만족도의 관측치 간 편차는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독립변수에서 자녀 수는 평균 2.22명이었는데 이는 통계청(2021)이 제공한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 수인 2.07명과 유사하여 표본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측정된 지역 특성 중 지역 규모에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대도시 특례의 지위를 가진 시, 중소도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그 외 읍면 지역은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은 각각 74개, 78개, 77개였다.

<표 3> 기술통계량

변수	단위	<i>N</i>	<i>M</i>	<i>SD</i>	Min	Max	
전반적 육아환경 적절성	점	1,163	28.56	5.24	8	40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	점	1,163	17.16	3.70	0	25	
지역시설 만족도	점	1,163	40.36	11.63	0	65	
가구 특성	모 연령	세	1,163	41.01	3.54	29	56
	부 연령	세	1,163	43.49	3.86	29	60
	모 취업 여부	-	1,163	0.58	0.49	0	1
	부 취업 여부	-	1,163	0.96	0.20	0	1
	월소득	만 원	1,163	567.13	534.42	90	8,000
	월지출	만 원	1,163	453.31	200.96	35	2,500
	자녀 수	명	1,163	2.22	0.70	1	6
지역 특성	대도시 여부	-	229	0.32	0.47	0	1
	중소도시 여부	-	229	0.34	0.47	0	1

변수	단위	N	M	SD	Min	Max
농어촌 여부	-	229	0.34	0.47	0	1
지역내총생산	백억 원	229	831	1,091	32	7,773
합계출산율	명	229	1.08	0.25	0.60	1.89
노령화지수	%	229	2.01	1.29	0.40	6.86

주: 로그변환한 가구의 월소득, 월지출, 지역내총생산은 원래 단위를 기준으로 기술하였음

2. 가구, 지역 특성 간의 수준별 상관관계

가구 특성과 지역 특성의 수준별 상관관계는 각각 <표 4>, <표 5>와 같다. 가구 수준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서로 0.714의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월지출은 부모의 연령, 취업 여부와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지역 수준에서 중소도시 여부, 농어촌 여부와 다른 지역 특성이 갖는 상관관계는 대부분 직관적인 판단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농어촌보다 중소도시가 지역내총생산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크고, 노령화지수는 작았다. 다만 대도시 여부와 지역내총생산 사이에 나타나는 부(-)적 상관관계는 직관에 반한다고 보기 쉬운데, 이는 대도시 여부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대도시 특례의 지위를 가진 시 내의 자치구가 시군구의 분석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가변적 공간 단위의 문제(modifiable area unit problem, MAU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가구 특성의 상관관계

구분	모 연령	부 연령	모 취업 여부	부 취업 여부	월소득	월지출	자녀 수
모 연령	1						
부 연령	0.714	1					
모 취업 여부	0.004	0.001	1				
부 취업 여부	0.008	-0.022	-0.013	1			
월소득	0.055	0.036	0.149	0.057	1		
월지출	0.098	0.083	0.225	0.100	0.331	1	
자녀 수	0.015	0.079	-0.026	-0.051	-0.075	-0.042	1

〈표 5〉 지역 특성의 상관관계

구분	대도시 여부	중소도시 여부	농어촌 여부	지역내총생산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대도시 여부	1					
중소도시 여부	-0.881	1				
농어촌 여부	-0.208	-0.280	1			
지역내총생산	-0.182	0.296	-0.243	1		
합계출산율	-0.340	0.239	0.196	-0.035	1	
노령화지수	-0.001	-0.298	0.616	-0.383	-0.164	1

3.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결정요인 식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세 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표 6〉). 모형 1은 종속변수를 전반적 육아환경 적절성으로 설정하였다.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로 위계적 선형모형 활용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모형 1의 ICC는 0.226으로 지역 수준의 변수가 전체 분산의 약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서 월평균 소득이 1% 증가하면 전반적 육아환경 적절성이 8.403점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0.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외 가구 특성과 지역 특성의 변수에서는 별다른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는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ICC는 0.135로 지역 수준의 변수가 전체 분산의 약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서 월평균 소득이 1% 증가하면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이 7.423점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0.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월평균 총지출이 1% 증가하면 4.843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외 가구 특성과 지역 특성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발견할 수 없었다.

모형 3의 종속변수는 지역시설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ICC는 0.712로 지역 수준의 변수가 전체 분산의 약 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서 엄마가 취업을 한 상태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역시설 만족도가 2.239점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자녀의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지역시설 만족도는 2.832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외 가구 특성과 지역 특성에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표 6〉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변수명		모형 1 (종속변수: 전반적 육아환경 적절성)	모형 2 (종속변수: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	모형 3 (종속변수: 지역시설 만족도)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가구 특성	모 연령	-0.295 (0.283)	-0.173 (0.225)	-0.033 (0.431)	
	부 연령	-0.347 (0.332)	-0.337 (0.238)	0.023 (0.576)	
	모 취업 여부	-0.571 (0.814)	-0.490 (0.578)	2.239† (1.324)	
	부 취업 여부	-0.003 (1.391)	0.751 (1.000)	11.655 (7.258)	
	월소득	8.403* (3.697)	7.423* (3.112)	-0.337 (4.514)	
	월지출	-4.225 (3.016)	-4.843† (2.580)	0.072 (4.166)	
	자녀 수	0.902 (1.397)	0.396 (1.056)	-2.832† (1.632)	
지역 특성	대도시 여부	-1.283 (1.356)	-0.707 (0.928)	1.442 (2.887)	
	중소도시 여부	0.007 (1.362)	0.115 (0.947)	-0.332 (2.963)	
	지역내총생산	-0.993 (0.704)	-0.613 (0.497)	0.041 (1.090)	
	합계출산율	-1.630 (2.052)	-1.136 (1.355)	1.225 (3.080)	
	노령화지수	-0.304 (0.634)	-0.150 (0.441)	1.276 (1.180)	
절편		29.744*** (1.707)	17.548*** (1.198)	31.887*** (7.539)	
무선 효과	가구 수준	분산	20.067	11.842	31.116
		설명비율	0.350	0.761	0.322
	지역 수준	분산	10.808	3.713	65.583
		설명비율	0.650	0.239	0.678

주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주 2: 통계적 유의성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한 결과임

주 3: 대도시 여부, 중소도시 여부 변수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농어촌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식별하였다. 가구 수준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와 지역 수준의 통계청 데이터를 병합하여 내재적 자료를 구축하였고, 육아친화성의 세 가지 정의에 따른 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와 요약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는 개별적인 가구 단위를 넘어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등 주변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양진희, 2021). 따라서 우리는 기존 육아친화성의 개념적 정의(김혜정, 2017; 권미경 외, 2019a; 최아라·김혜순, 2021)를 바탕으로 하되, 사회적 측면의 육아환경 적절성과 물리적 측면의 지역시설 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전반적,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 그리고 지역시설 만족도 세 지수 모두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내에서 지역사회 육아친화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조작적 정의는 부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가 확보된 해당 지수는 나름의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향후 사회의 육아친화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사회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부모들은 전반적 육아환경 적절성,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 지역시설 만족도 등 모든 측면에서 지역사회 육아친화성이 적절한 편이라 인식하였다. 하지만 변동계수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지역시설 만족도의 관측치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시설 만족도는 만족에 가까우나 가구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구 간 육아지원시설, 공원녹지, 여가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의 인프라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취학아동으로 제한된 육아인프라의 대상 연령을 학령기까지 확장하는 한편, 각 지역만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박혜림(2023)의 제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질문인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지역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 육아환경 적절성과 직접적 육아환경 적절성이 높아졌다. 둘째, 가구의 지출이 높을수록 직접적 육아환경은 낮아졌다. 셋째, 지역시설 만족도의 경우, 엄마가 취업한 상태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으나,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육아환경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므로 일자리 창출 역시 육아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

하라·박지영(2021) 역시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이 유효한 육아정책임을 확인한 바 있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23)에 따르면 미국에서 역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인 ‘아동발달 지원과 가족 경제 안정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es to Supporting Child Development and Improving Family Economic Security)’으로 부모의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아동의 웰빙(well-being)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별개로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성 지원이 여전히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물리적 측면인 지역시설 만족도는 워킹맘(working mom)이 있는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직업이 있는 엄마들은 전업주부보다 지역사회의 육아 관련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일하는 엄마’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둔 여성친화도시의 접근법(유희정 외, 2010)이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3기 신도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으나(구한민 외, 2021), 기존 도시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박혜림, 2023). 구체적인 콘텐츠는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보육시설 서비스와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스웨덴의 사례(이삼식, 2012)를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진보의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구한민·홍사흠, 2023)에서는 구한민·김갑성(2022)의 제안처럼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역시설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육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간 이루어진 출산장려금, 기저귀 제공 등 현물 위주의 지원과 함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육아 관련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를 위한 종일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신윤정, 201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을 확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이들은 단태아(單胎兒) 위주로 설계된 현행 정책을 시정함으로써(신성식, 2023) 쌍둥이 출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효한 접근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 결정요인과 관련한 연구의 간극을 잇는 초기적 시도이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의 확산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 역시 상존한다. 첫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서 거주지역을 응답한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공산이 있다. 따라서 후행하는 연구에서는 다층적 요인을 고려하는 동시에 편의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론의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육아친화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확보하였으나 타당도를 검증하지는 못

하였다. 이는 한국아동패널이라는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연구에서는 측정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타당도를 함께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진. (1995). 다층통계모형의 방법론적 특성과 활용방법. 「교육평가연구」, 8(2): 63-94.
-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 (2020a).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강은진·황명화·박진아·조혜주. (2020b).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리빙랩 활용 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3(3): 21-34.
- 강하라·박지영. (2021). 「구군 출산정책 현황 및 여건 분석: 육아친화마을 조성 중심」.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구한민·김갑성. (2022). 누가 스마트안전, 스마트방재 서비스를 선호하는가?: 전라북도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탐색적 접근. 「도시부동산연구」, 13(2): 5-20.
- 구한민·김갑성·장현서. (2021).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1·2기 신도시 평가에 기반한 기본구상 및 도시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22(1): 5-24.
- 구한민·홍사흠. (2023).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지역 특성이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58(2): 135-146.
- 구한민·황의현·김갑성. (2023).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기업의 매출액 간 상관관계 평가. 「산업진흥연구」, 8(2): 1-9.
- 권미경. (2017).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을 넘어선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육아정책 Brief」, (57).
- 권미경. (2020). 「가구특성별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 (202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문무경·김경민. (2019a).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연구(I):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황선영·이혜민·박지윤. (2019b).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량·김성원. (2012). 육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1(4): 141-161.
- 권오석. (2022.10.18.). 영천시, 양육친화도시 조성 순항.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671>

- 권유경·정소희. (2010). 지역사회 SES,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학교적응과 공격성. 『사회복지연구』, 41(3): 379-402.
- 김경성. (1991). 다층자료분석에 관한 연구: 분석방법의 고찰. 『교육평가연구』, 4(1): 5-21.
- 김경수·허가형·김운수·김상미. (2018).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나영·권미경·오동석·정유나. (2021).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III):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이재희·장현진. (2021). 『빅데이터에 기반한 육아정책 쟁점과 향후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숙자. (2018). 『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용목. (2023.03.16.). 출산·육아 친화도시 상주 만든다. 『경상매일신문』. <http://m.ksmnews.co.kr/view.php?idx=417835>
- 김우림. (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은설·김지현·이재희·김혜진. (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지혜·이재춘·이길제·김정인·조한진. (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김혜정. (2017). 『지역사회 육아 친화 환경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희삼. (2023.02.01.). ‘저출생’이라 불러도 직시해야 할 것.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627005>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박진백. (2021). 주택가격 상승 충격의 저출산 심화 기여도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7(4): 607-612.
- 박혜림. (2023).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Tax Issue Paper』, 97.
- 박효용·여영기. (2014).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85: 69-95.
- 배은경. (2021).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페미니즘 연구』, 21(2): 137-186.
- 서문희·이윤진·유해미·송신영·김세현. (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유리. (2023.03.09.).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올해는 4곳 선정.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30916311730069>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19(1): 331-357.
- 신성식. (2023.06.02.). “도우미 이모님도 안 오셔요”...1명과 똑같은 네 쌍둥이 지원책.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137>
- 신윤정. (2012).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51).
- 신윤정·이지혜. (2009).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정희선·계봉오·김영롱·최슬기. (2022).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진전 시대의 한국 인구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진희. (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환경에 대한 경험. 『열린교육연구』, 29(6): 227-248.
- 여성가족부. (2020.09.15.).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보도자료).
- 유재연·진미정. (2013).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25개 구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1(3): 63-79.
- 유해미·이윤진·김영옥·김진성·손인숙·손다영·안현미·최영. (2019).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 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양미선·송신영. (2012).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유희정·최진·문희영. (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우석. (2010).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1(1): 175-202.
- 이두걸. (2022.10.24.). ‘육아 친화도시’ 영등포구, 보육주간 맞아 기념행사 ‘풍성’. 『서울신문』.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4500047>
- 이복순·정운태·이훈희. (2010).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혁신학회보』, 1(1): 37-59.
- 이복실. (2011).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원화 사회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포럼』, (175): 2-3.
- 이삼식. (2012).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169).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7.
- 이윤경. (200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다층모형(HLM)을 통한 개인과 지역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29(1): 213-235.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주림·구자훈. (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 이효창. (2022). 도시 저층주거지역의 육아환경 및 디자인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 연구. 「한국 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78): 150-159.
- 임혜성. (2016). 한국아동패널(PSKC)을 활용한 연구동향: 복합자료(Complex Sampling Survey Data) 분석의 방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391-412.
- 전인수. (2022.11.02.). 동해시 2026년까지 양육·보육 친화도시로.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2256>
- 정성호. (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49(1): 69-91.
- 차인영·최미미·서영숙. (2016).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교실환경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상준·이명석. (2013).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 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93-114.
- 최슬기. (2018.10.24.). ‘저출생’으로는 ‘저출산’ 못 막는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7224.html>
- 최아라·김혜순. (2021). 아동친화도가 양육환경만족도 및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4): 1217-1232.
- 최지은·김현경. (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의 신체적·정신적 적응: 생활시간조사와 한국 아동패널을 이용한 시대, 연령, 코호트 간 차이 분석. 「한국사회학」, 53(3): 1-41.
- 통계청. (2021.12.0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보도자료).
- 통계청. (2023.02.22.).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보도자료).
- 홍승아·김혜영·류연규·소마 나오코·조순주·진미정. (2009).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정화. (201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법과 정책연구」, 12(3): 1141-1175.
- Bland, J. M. and Altman, D. G. (1997). Statistics Notes: Cronbach's Alpha, *Bmj*, 314: 572.
- Bongaarts, J. (2002).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3): 419-443.
- Espenshade, T. J., Guzman, J. C. and Westoff, C. F. (2003). The Surprising Global Variation in Replacement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5-6): 575-583.
- Hancocks, P. (2022.12.04.). South Korea spent \$200 billion, but it can't pay people enough to have a baby. *CNN*. <https://edition.cnn.com/2022/12/03/asia/south-korea-worlds-lowest-fertility-rate-intl-hnk-dst/index.html>

- Roosa, M. W., Jones, S., Tein, J. Y. and Cree, W. (2003). Prevention Science and Neighborhood Influences on Low-Income Children's Development: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1-2): 55-72.
- Schutt, R. K. (2018). *Investigating the Social World: The Process and Practice of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avakol, M. and Dennick, R. (2011). Making Sense of Cronbach's Alpha,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 53-55.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23). *State of World Population Report 2023*. New York, NY: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한국아동패널. https://panel.kicce.re.kr/pskc/html.do?menu_idx=50 (검색일: 2023.03.28.)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upporting/support-services/policy/> (검색일: 2023.05.05.)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검색일: 2023.05.03.)

-
- 구 한 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도시계획및개발연구실과 스마트시티융합서비스연구개발단 소속하여 있으며,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미래도시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ghm21@yonsei.ac.kr).
- 김 서 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도시계획및개발연구실과 스마트시티융합서비스연구개발단 소속하여 있으며, 관심 연구 분야는 도시계획 및 설계이다(sykim16@yonsei.ac.kr).
- 허 연:**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도시계획및개발연구실과 스마트시티융합서비스연구개발단 소속하여 있으며, 관심 연구 분야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정책이다(yeon.hur@yonsei.ac.kr).
- 김 나 영:** Wayne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거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 보건 및 인구경제학이다(nkim@kicce.re.kr).

